

광주교육청 “교장실에 청렴서약서 액자 걸어라”

교장들 “비리집단 취급” 반발

“마지막 남은 교사의 자존심까지 꺽아내리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교와 특수 학교장, 단설 학교장 등으로부터의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제출받은 서약서를 B4용지(250mm x 352mm) 크기로 확대한 뒤 대형 액자에 넣어 학교에 배포해 오는 4월부터 사무실의 가장 잘 띠는 곳에 게시도록 의무화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촌지·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등

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조항에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는 조항도 있다.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등에 따라 이달말까지 청렴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대형 액자에 든 청렴서약서를 게시하는 것은 교단 전체를 거대한 비리집단으로 비춰지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겨온 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관급공시를 밟주하거나, 공공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장도 아닌데, 청렴서약서를 대형 액자에 넣어 벽면에 걸도록 하는 것은 교단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결핵예방의 날

24일 ‘제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광주시 서구 광진동 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한 시민이 의사로부터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복심자병원 재개원해야”

광주, 올부터 휴원… ‘난치성 결핵환자’ 진료 어려움

24일 제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난치성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광주 복심자병원이 재개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심자병원은 대한결핵협회 부설 의원으로, 지난해까지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축소로 할 때 따라 서울·부산·대구 등 3개소만 남긴 채 광주 복심자병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휴원 중이다.

이로 인해 병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의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난치성 결핵환자 수십명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호남지회(지회장 김용억)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광주 복심자병원에서 난치성(다내성)결핵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결핵환자는 30여명에 이르며, 일반결핵환자까지 포함하면 연 100여명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특효약이 없는데 꾸

준한 관리가 필요한 난치성 결핵의 특성상, 환자들은 복심자병원의 휴원 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5년째 결핵을 앓고 있는 김모(46·가명)씨는 “난치성 결핵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수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심자병원이 문을 닫은 후 시간적·경제적 고통이 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따라 대한결핵협회 호남지회는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복심자 병원은 지자체의 지원만 있으면 재개원할 수 있기 때문. 호남지회는 지자체에서 병원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휴원을 유예시킨 강원지회의 복심자병원을 예로 들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호남지회 박노홍 본부장은 “연중 필요한 병원 인건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6000만원만 광주시

에서 부담해 준다면 당장 개원할 수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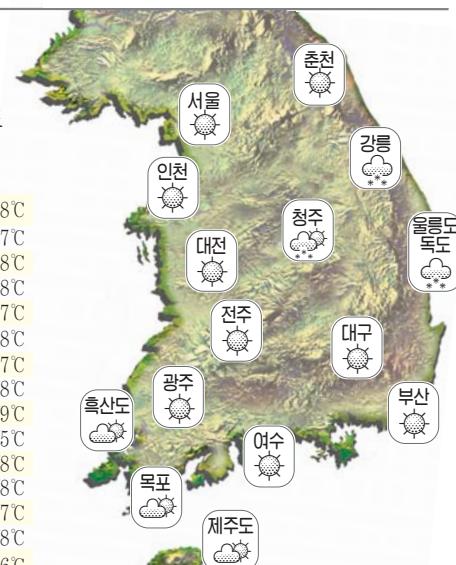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6시 30분 해진 18시 48분 달밤 00시 13분 달점 10시 11분

봄은 언제 오려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4도 가량 높겠다.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서~북서	2.0~4.0m	식중독지수 뇌졸증지수
남해 서부	일비다	북서~북	2.0~3.0m	보통
남원	일비다	북서~북	2.0~4.0m	관심 낮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서~북서	2.0~4.0m	목포 06:15 11:15
남해 서부	일비다	북서~북	2.0~4.0m	여수 18:08 23:18
남원	일비다	북서~북	2.0~4.0m	여수 00:36 06:48
				12:36 18:44
◇주간날씨	날짜	26(토)	27(일)	28(월)
최저/최고	-1/11	1/15	2/15	3/15
				3/16 5/18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광주 첫 ‘3색 신호등’ 시범운영

광산구 첨단 보훈병원 앞 사거리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지역 최초로 광산구 첨단 보훈병원 앞 사거리에 3색 신호등을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좌회전 신호기 있는 교차로의 신호등은 왼쪽부터 빨간색·노란색·녹색 화살표·녹색 등 순서지만 새로 설치되는 신호등은 좌회전 차량을 위해 좌회전 화살표가 3색으로 표시되며 등을 추가한다.

3색 신호등의 특징은 빨간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 운행해서

는 아되며, 다음 신호가 녹색 좌회전 화살표로 바뀐 뒤 좌회전해야 한다.

이번 신호등 체계 변경은 교통신호 운영 체계 선진화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국제표준에 맞는 명확한 신호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 3색 신호등으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 1000만원

광주 동구 아이 울음소리 커졌다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도한 광주시 동구의 출산율이 꾸준히 높고 있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662명으로, 2009년 593명보다 11.6%(69명)나 증가했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첫째아이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둘째 200

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출산 직후 전출을 막기 위해 셋째 이상 출산 축하금을 2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하며, 출산 전 6개월 시점에서 부모와 아이들의 거주지를 이 지역에 둔 가구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 4월5일 개점합니다!

호남 지역 보청기 사용자께서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속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 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